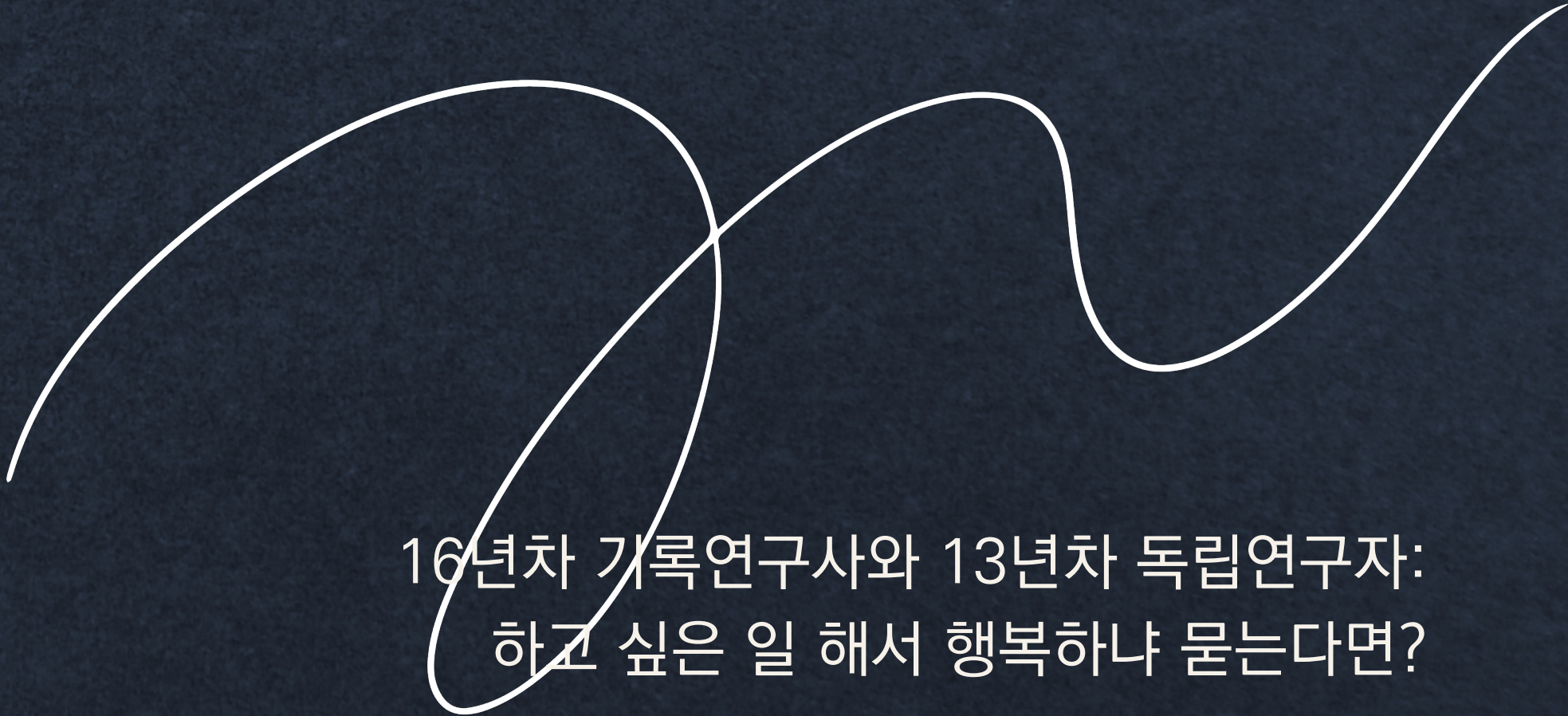


Archivist Lounge



16년차 기록연구사와 13년차 독립연구자: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

Contents



Contents

Prologue

발표의 배경

- 라운지 소개
- 문제 의식

Part I

두 기록전문가의
일 이야기

- 류신애 이야기
- 황진현 이야기

Part 2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Part 3

바꿀 방법은
있을까?

Epilogue

우리의 바람

Prologue



발표의 배경



About Us

Members

류신애

아키비스트라운지 공동편집장

'~할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

16년차 공공기관 소속 기록전문가

기록정보학 박사 (2023)

황진현

아키비스트라운지 공동편집장

내가 좋은 것을 하려는 사람

13년차 독립연구자

정보기록학 박사 (2019)

Vision

사람들이 기록학, ‘아키비스트’에 대해 궁금할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웹사이트

취업 정보 위주의 카페,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은 다른 플랫폼들 대신

“기록과 기록학이라는 분야,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주는 곳”

- 공부와 일에 필요한 정보
- 우리가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 직장인이자 직업인으로서 가지는 고민과 각자의 작은 한 걸음

Timeline

2017

라운지 결성

2018-2020

인터뷰시리즈 시즌1

아키비스트의 하루

2021-2022

Re:view 시리즈

(6인 프로젝트팀)

2023-현재

인터뷰시리즈 시즌2

Achievements

2024. 11. 1. 기준

Views

97,944

Visitors

31,873

Posts

118

Most Popular Post

4,928

[학위논문 현황]

More Information

archivist.co.kr > [article_lounge](#)

| 2021 아키비스트캠프

'아키비스트라운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모읍니다'

| 2018 제10회 기록인대회

'기록 공동체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인터뷰'

| 2017 제 9회 기록인대회

'9년차 아키비스트의 사적인 생각', '아키비스트가 말하는 아키비스트'



Problem Statement

1. Still 1st-Gen Archivists

‘아카이브’의 확산과 기록전문가

| 기록공동체는 이 확산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을까

| 채용: 자발적 수요 < 법적 강제

→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 전문요원 자격취득자 배출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대학원	시험	교육원
합계	3,048	2,468	326	254
2023	162	148	14	
2022	170	158	12	
2021	169	152	17	

● 2023년 전문요원 배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배치기관			배치인원		
	배치대상	배치기관	비율	배치정원	배치인원	비율
합계	1,633	1,047	64.1	—	1,188	—

출처: 2024년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2023. 12. 31. 기준)

2. Still Timely

2018년의 인터뷰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이유는

| 인터뷰이 섭외가 탁월했다.

| 라운지 두 명이 인터뷰 글을 잘 썼다.

| 업계/학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3. Career Dilemma

두 공동편집장의 커리어 고민

| 10년차 기록전문가인 우리 두 사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

| 두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4. People within, not the System

‘법령 25년’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기록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길

| 기록관리제도 하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대다수인게 현실이라면

| 제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논의하는 것이 개선의 시작

Part 1



두 사람의 일 이야기

Chapter 1



류신애

류신애

16년차 기록연구사

2009. 1. -

- | 2009. 1. - 2021. 10.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선임전문원 (교학처 정보자료팀, 중앙도서관 도서2팀)
- | 2014.11. - 2018. 11. 한국개발연구원 기록관리팀장 (중앙도서관)
- | 2021.10. - 현재 한국산업은행 기록연구사 (총무부)

16년차 기록연구사

한 일: 기록관리 담당자/팀으로서 기본 업무

| 서고 전수조사

| 기록관 운영 규정 개정, 제정(2014)

| 기록물분류기준표 수립과 운영

| 기록 이관과 수집, 서비스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 간행물 관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절차 재수립

16년차 기록연구사

한 일: 기관의 핵심 기록과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 NAS 도입과 운영 (2009-)

| 그룹웨어 기록관리기능 고도화 (2011, 2015)

| 회계증빙서 디지털화 (2010-)

| 기관 레파지토리 구축, 운영 - 고도화 (2012-)

| 기록 서비스 컬렉션 구성 (2009-)

| 교원연구업적관리시스템 도입, 연구자페이지 구축과 운영 (2019-)

| 기관 간행물 통합관리체계 수립 (2015-)

| POD(Print on Demand)센터 도입과 운영 (2016-)

기록정보학 박사

2023. 2.

| 2018. 3. 입학, 2020. 12. 수료, 2023. 2. 졸업

| 「생산기관 중심의 공공기록 평가제도 재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정보학 겸임교수

2023. 3. - 현재

| 2023. 3.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록 평가선별론)

협회 초기 멤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0. 2. – 2013. 2.

| 2008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인턴 (3월-9월)

| 2010 기록전문가협회 설립을 위한 추진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7월)

| 2010 -201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국 차장

육아하는 생활인

생활과 선택의 바탕

| 서울 사람

| 맛벌이하는 직장인

| 만 4세 아이의 엄마



요약

기록학과 기록커뮤니티에 2007년부터 깊이 들어와 있고,

시간과 돈과 노력(=일에 대한 모든 애정)을 기록 커뮤니티 안에서 쏟아 온 사람

류신애 커리어 1기

내 일의 의미와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 (2009-2021)

일에 대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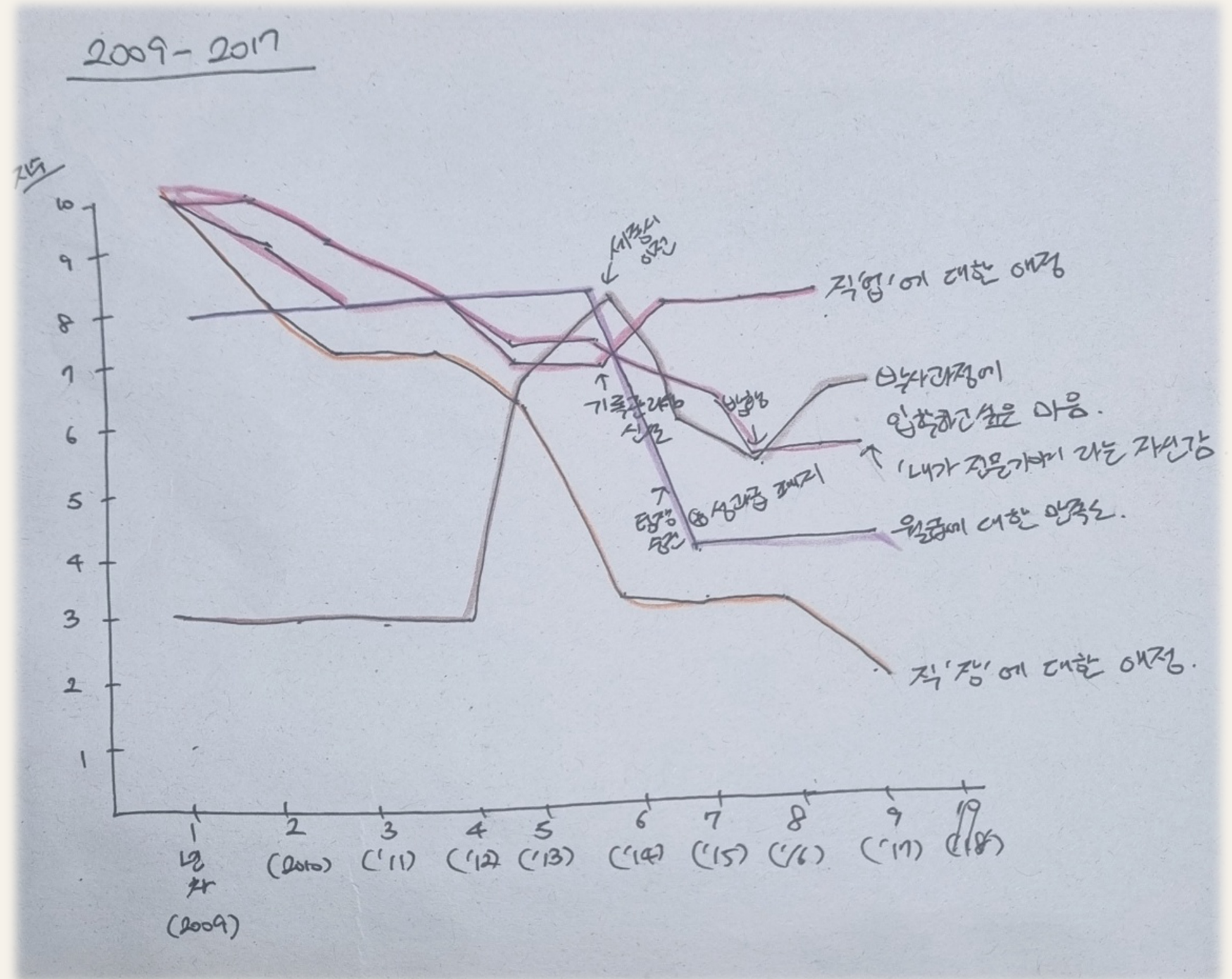
스스로 만든 감정 지표

| 직업에 대한 애정

| 직장에 대한 애정

| 내가 전문가라는 자신감 -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

| 월급에 대한 만족도



일과 공부의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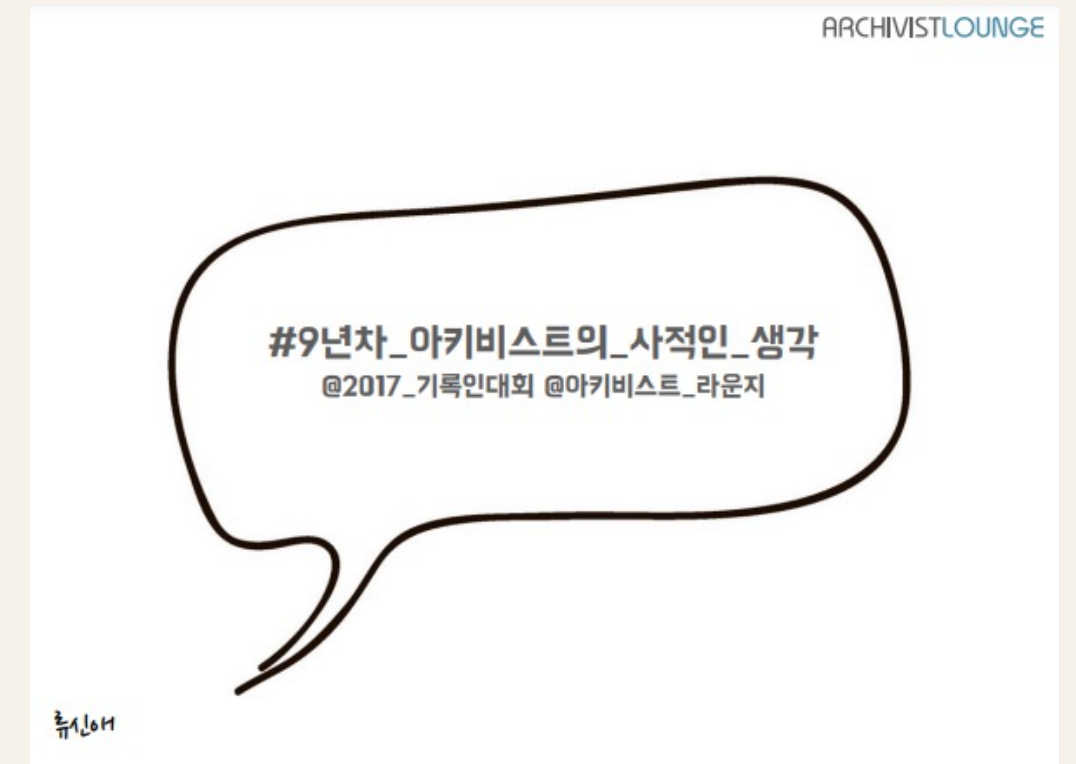
“탁월한 + 행복한 아키비스트가 되고 싶다”

| 나는 이 곳에 필요한 사람인가

| 나는 아키비스트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 나는 내 일을 잘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를 환원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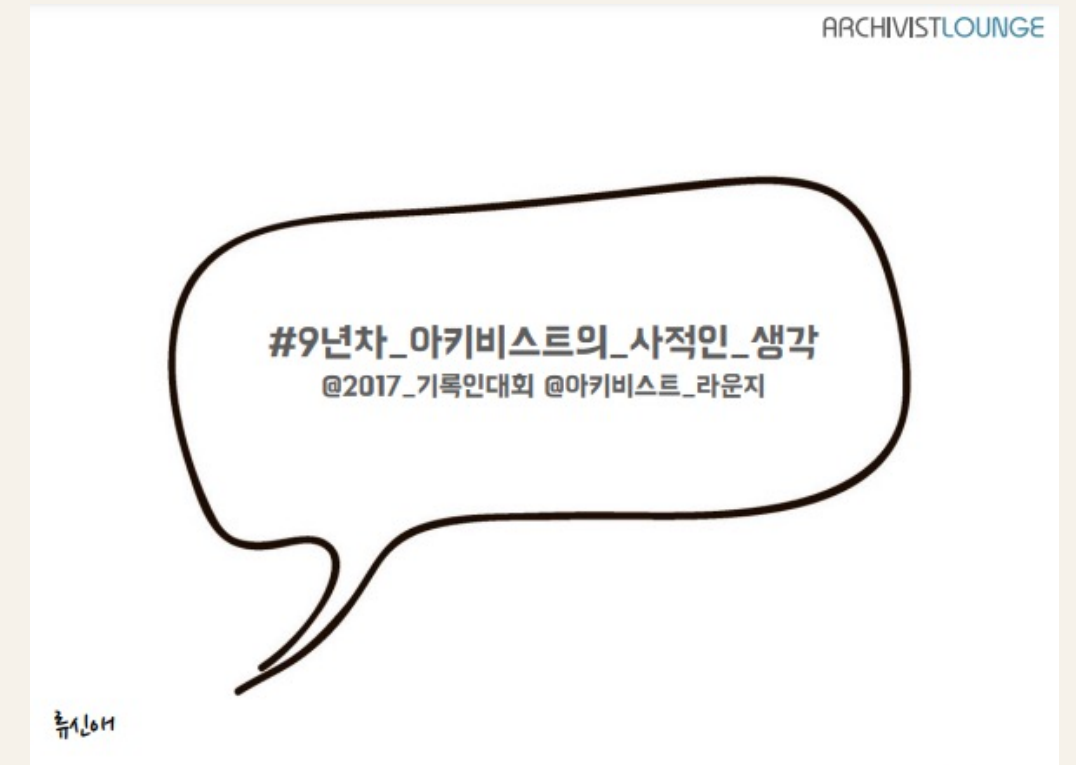


커리어의 방향

직장 안에서 먼저 전문가로 성장하고 인정 받는 게 먼저

단, 직장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 2년마다 꼬박 꼬박 갱신한 토익 점수



류신애 커리어 2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2022-)

일에 대한 감정

나는 내 일을 좋아하고 싶다. 하지만.

기록학 공부를 재밌게 했고,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서 감사함을 느끼던 내 안에서 '이 곳 - 좁게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리, 넓게는 기록관리업계 전체 - 에는 답이 없다'는 단호한 생각이 자라난 것이 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기꺼이 최선을 다해 나의 능력과 마음을 쏟고 싶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기대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것이 '오버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능력'이면 좋겠다.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라는 일을 택했다는 대가가 이런걸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감정

‘보어 아웃’ 성장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자극이 충분하지 않은 직장 환경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 내가 한 일의 퀄리티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조직

|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나의 위치,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록관리 업무들

사람들은 (중략)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여길 때, 바로 무료함을 느끼고 권태로워진다.

(중략)

그리고 어려움이나 도전에 맞서서 해결해냄으로써 나의 존재감과 자아의 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힘을 얻는다.

일에 대한 감정

‘보어 아웃’

‘전문직’이 공공기관 ‘행정직’ 중 1인으로 존재할 때

archivarin님의 BEST & WORST 직무는

1위

전문직

적합도 높음

13위

공무원

적합도 낮음

일과 공부의 바탕

초점의 전환: 나의 성장과 미래 (원래도 그랬지만 더 적극적으로)

|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도전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육아하는 직장인인 나에게

| 내 노력의 결과를 알아볼 사람이 있는가

| 내가 하는 일이 아키비스트로서 해내야 하는 일인가

| 나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일인가 (직장 내부에서의 인정에 대한 중요도 ↓)

일에 대한 욕구

‘성장’ 욕구

|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기록관리 일을 추진하고 싶다는 마음

- 기관 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서 채용되면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를 감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출처: 김지현 / 제작: 퍼블리

[PUBLY] 커리어 공략집 : 성과 편
-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

커리어의 방향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지금까지 해온 일과 공부를 바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전환점



‘기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의 한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직업인가

| “보상(돈), 의미, 재미, 관계” 하지현, 2024,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일에 먹히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자음과 모음, pp. 83-86.

| “금전적 이유, 다른 사람의 인정, 자아 성장” 성일레인, 2023, 『무브 업-커리어 변화구를 만드는 6가지 법칙, 다산북스, pp. 210-211.

| “생존, 돈, 본질, 적응, 타인의 인정, 자신의 인정, 청교도적 노동 윤리, 대안의 부재”

데니스 뇌르카르크 아네르스 포그 엔센, 2022, 『스스로 만드는 번아웃의 세계 가짜 노동, (주)자음과 모음. pp. 332-339)



‘기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직업의 한계

일을 하는 네 가지 이유를 통해 생각해 보기

보상

- | 연봉과 직급
- | 의사 결정권과 주도권

의미

- | 기관 기록관리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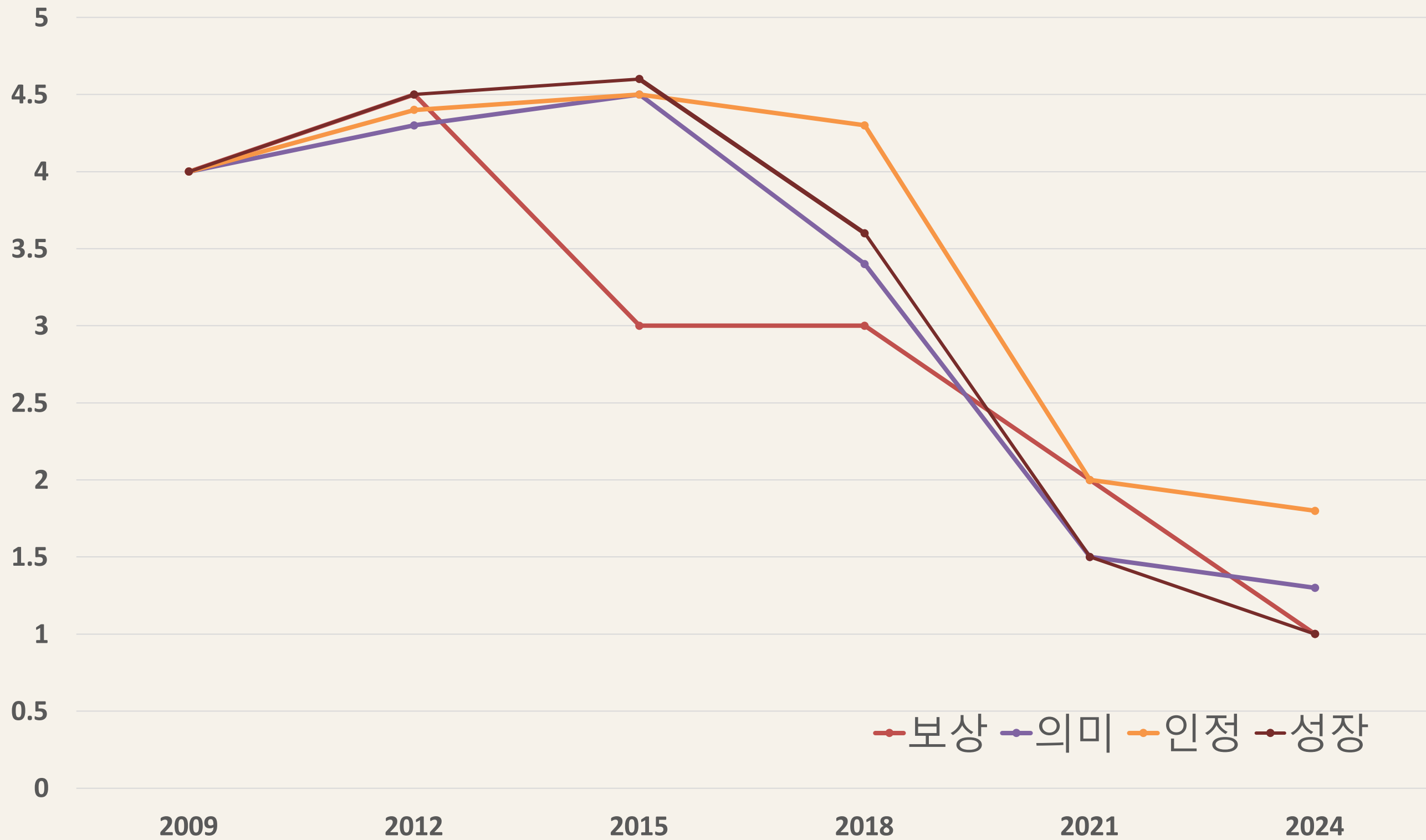
인정

- | 타인의 (객관적인) 인정

성장

- | 스스로에 대한 인정

2009-2024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보상

[참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노동통계)

<표 Ⅲ-5>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단위:천 원/월)	
	1 ~ 4인	5 ~ 9인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 이상
2009		2,115	2,442	2,682	2,957	3,934
2010		2,212	2,561	2,837	3,126	4,291
2011	1,746	2,186	2,562	2,864	3,113	4,273
2012	1,826	2,295	2,711	3,046	3,355	4,424
2013	1,856	2,389	2,815	3,145	3,484	4,583
2014	1,885	2,434	2,931	3,258	3,443	4,827
2015	1,948	2,539	3,063	3,351	3,487	5,017
2016	2,039	2,634	3,183	3,462	3,668	5,131
2017	2,095	2,754	3,267	3,519	3,881	5,145
2018	2,210	2,902	3,403	3,665	4,035	5,474
2019	2,325	3,042	3,511	3,817	4,178	5,492
2020	2,410	3,115	3,582	3,850	4,177	5,335
2021	2,466	3,266	3,698	4,031	4,445	5,687
2022	2,606	3,421	3,841	4,194	4,671	6,049
2023	2,727	3,477	3,954	4,215	4,741	6,212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 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노동통계
3.임금 및 노동생산성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보상

[참고] 학력별 임금총액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노동통계)

<표 Ⅲ-9> 학력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천 원/월)				
		전체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10인 이상	2009	2,837	1,986	2,362	2,472	3,638
	2010	2,913	2,026	2,388	2,518	3,709
	2011	3,051	2,055	2,537	2,711	3,885
	2012	3,143	2,092	2,595	2,765	3,986
	2013	3,281	2,233	2,711	2,916	4,144
	2014	3,407	2,047	2,766	3,138	4,268
	2015	3,451	2,064	2,691	3,100	4,420
	2016	3,522	2,167	2,748	3,192	4,447
	2017	3,629	2,245	2,895	3,260	4,511
	2018	3,775	2,421	3,003	3,391	4,642
	2019	3,908	2,493	3,116	3,505	4,779
	2020	3,915	2,271	3,046	3,493	4,834
	2021	4,028	2,442	3,121	3,645	4,923
	2022	4,271	2,553	3,306	3,803	5,195
	2023	4,454	2,531	3,410	4,071	5,392
주: 1)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 연간특별급여/12.						
2)비농전산업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노동통계
3.임금 및 노동생산성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보상

[참고] 성/학력/근속연수별 임금수준(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노동통계)

<표 Ⅲ-13> 성·학력·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단위:천 원/월)							
	성별	학력별	1년 미만	1-3년미만	3-6년 미만	6-9년 미만	9-12년 미만 12년 이상
2023	남성	중졸이하	2,018	2,317	2,431	2,615	2,889 3,309
		고 졸	2,440	2,666	2,838	3,084	3,262 3,896
		초 대 졸	2,810	3,040	3,277	3,528	3,661 4,454
		대졸이상	3,650	4,014	4,364	4,863	5,451 6,447
	여성	중졸이하	1,461	1,648	1,833	1,932	1,956 2,315
		고 졸	1,805	2,006	2,189	2,380	2,510 3,241
		초 대 졸	2,173	2,428	2,574	2,883	3,089 3,999
		대졸이상	2,687	3,069	3,386	3,736	4,126 5,130

주: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의미

진짜 ‘기록’은 건드릴 수 없는 기록관리제도

|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할 일을 한다 ≠ 기관의 핵심 아카이브를 포착하고 관리한다

–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실현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건 나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인정

기관의 핵심 업무에서 멀기만 한 ‘기록관리’

| 업무 분류: ‘지원 업무’

| 수평적 성장의 가능성도 없는 조직 형태 + 계약 조건 – 개선의 여지도 없는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인정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 기록관리 업무 수준에 대한 기관의 기대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느꼈다.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배워가는건 재밌었지만 답답함도 느꼈다. 기관에서 나에게 원하는 수준을 정해 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매일을 기록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 최성미 인터뷰)

정말 고민이 많았다. 내가 유일한 기록전문가인데 기록관리에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정말 없었다.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는 여정: 염지수 인터뷰)

총무팀에서 하는 모든 일의 ‘부’담당자가 나다. 너는 부서 이동 없이 이곳에서 고정된 일을 할 것이고 결국 이 일도 맡게 될 거니까.’ 라는 맥락에서 오히려 더 일이 많이 온다. (올해에는 기록관리 못합니다: 허덕행 인터뷰)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인정

사람에 대한 인정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행사에서도 보이는 기록연구사에 대한 인지

관리자격인 팀장, 나, 다른 실무자 셋이서 함께 시상식 자리에 갔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상급자가 수상하러 나가기로 했는데, 행사장의 자리 배치상 그러면 수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동반자석’이라는 구역에 따로 앉아야 했다. **업무 특성상 포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일 실무자가 시상식 자리에서는 단지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기획한 상인 만큼 기록연구사 또는 전담실무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세심하게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키비스트라운지,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 최윤진 인터뷰)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성장

이제 그만하고 싶은, 기록관리 초기 단계 업무

- | 지금까지 세 번 반복 – 규정 제정, 전수조사, 기록관리기준표 수립과 평가심의회.
- | 담당자들의 퇴직과 이직 – 제자리인 기록관리,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느끼는 일의 가치_성장

일을 통해 기관과 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 부서와 기관에 대한 나의 기여가 나의 성과로 돌아오는가?

| 수직적 성장이 없는 자리에서 지속적 '성장' 이 가능한가? 의미가 있는가?

종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직업인/직장인으로서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

|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의 조언

류신애 커리어 3기

새로운 문을 열고 싶은

기본 조건

선택의 범위

| 내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

* 보통의 내 연차 직장인이 받는 연봉+복지가 있는 곳

| 가족과 같이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

|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선택의 방향

1. 실무자로서 일하기
2. 연구자로서 일하기
3. 제3의 대안을 찾기

선택의 방향

1. 실무자로서 일하기

2. 연구자로서 일하기

3. 제3의 대안을 찾기

실무자로서 일하기

공공부문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기록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면?

관리자급 이상의 기록전문가 채용 공고

- |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서울기록원장
- |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 기록정책과장
-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실무자로서 일하기

기록관리 관련 기업에서 기록전문가로 일한다면?

2. 2022년 전체 매출액

[표 7] 전체 매출 현황

(단위 : %, 백만 원)		사례수	10억 이하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40억 이하	40억 초과 50억 이하
전체		(2,753)	61.4	10.5	6.2	3.7	2.0
전자문서 생산업		(1,098)	68.7	9.2	6.0	4.3	1.4
전자문서 관리업	소계	(1,174)	56.2	11.5	7.7	3.3	1.8
	전자문서 콘텐츠 관리·보관·보안업	(571)	51.6	10.8	6.5	2.2	2.7
	전자문서 기록관리 및 보존업	(73)	61.6	16.4	5.5	2.7	0.0
	전자문서 공유·통합 관리업	(530)	60.4	11.6	9.3	4.6	1.2
전자문서 유통업		(481)	57.1	11.1	2.9	2.9	4.1

[표 8] 전체 매출 현황 (계속)

(단위 : %, 백만 원)		사례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1,000억 초과	전체 매출액 평균
전체		(2,753)	7.4	6.2	0.9	1.7	58,976
전자문서 생산업		(1,098)	4.9	4.3	0.5	0.8	4,971
전자문서 관리업	소계	(1,174)	8.9	7.9	1.4	1.3	28,713
	전자문서 콘텐츠 관리·보관·보안업	(571)	13.7	9.8	0.7	2.1	54,207
	전자문서 기록관리 및 보존업	(73)	2.7	9.6	0.0	1.4	9,369
	전자문서 공유·통합 관리업	(530)	4.6	5.7	2.3	0.4	3,911
전자문서 유통업		(481)	9.3	6.6	0.9	5.0	256,118

(Base: 전체)

| 산업의 크기 = 신규 채용 기회 + @

| 주요 업무: 공공기관 발주 기록관리 사업 수행

선택의 방향

1. 실무자로서 일하기
2. 연구자로서 일하기
3. 제3의 대안을 찾기

연구자로서 일하기

연구 ‘용역’이 아닌 ‘연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

| 현재 기록학 분야 박사인 기록학 교수 현황은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연구원의 박사 연구위원 TO는

실무자로서 일하기

가 없을 수밖에 없는 ‘기록학’의 위상

학술표준분류표 (2024.11.30. 이후 시스템 반영)

분야코드	구분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세분류명	분류명 (영문)
H0300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0301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general
H030101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정보/도서관정책	Information / Library Policy
H030102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비교문헌정보학	Comparative LIS
H030103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사	Library History
H0302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보존		Archival Studies / Conservation
H0303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Korean Bibliography
H0304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도서관/정보센터경영		Library /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H0305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s
H0306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자료/미디어		Information Resources / Media
H0307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Organization of Information
H030701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분류	Classification
H030702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편목/메타데이터	Cataloging / Metadata
H030703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색인/초록	Indexing and Abstracting
H030704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전문용어/시소러스	Terminology / Thesaurus
H0308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H030801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검색	자동색인/요약	Automatic Indexing / Summary
H030802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검색	자동분류/클러스터링	Automatic Classification / Clustering
H0309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ies
H0310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공학		Information Technology
H0311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계량정보학		Informetrics
H0312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정보교육		LIS Education
H039900	H	복합학	문헌정보학	기타문헌정보학		Othe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로 보는 기록학의 위상: 문헌정보학 13개 소분류 중 한 영역

선택의 방향

1. 실무자로서 일하기
2. 연구자로서 일하기
3. 제3의 대안을 찾기

제3의 대안은

문제 종합

인하우스 레코드매니저라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기관의 기록전문가로서 성장하고 나이 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 내가 노력한 시간: 미래 경력을 위한 디딤돌 << 방해물



그나마 운이 아주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라는 정체성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Chapter 2



황진현

13년차 독립연구자

2012. 3. – 현재 (독립연구자)

| 2012. 3. – 2014. 2.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 2014. 3. – 현재 연구자로서 소속기관을 갖지 않는 독립연구자

13년차 독립연구자

프로젝트 수행 이력

| 2012년 이후 총 -개 연구 프로젝트 수행

| PM 또는 책임연구원으로 참여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중앙부처 등 기록관리 정책연구 수행

| 연구 프로젝트 자문

[연구사업]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정보자료관 구축전략 수립 연구용역, 2012 (선임연구원)
- 서울시청,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 2012 (선임연구원)
- 국가기록원,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 세부기준 개발 연구, 2012 (선임연구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13 (선임연구원)
- 서울시청,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013 (선임연구원)
-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 관리 프레임 개발 연구, 2013 (선임연구원)
- 대검찰청, 검찰 특수기록관 업무프로세스 개발 및 시스템/장비에 관한 연구, 2013 (선임연구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전략 연구, 2013 (PM)
- 대통령기록관, 2014년 대통령 관련 근무자 구술채록 연구 용역, 2014 (연구보조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서공개.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NSIC 고도화 추진, 2014 (PM)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기준 연구 : 연구관리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2015(PM)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록물 관리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2016(PM)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위한 ISP 및 로드맵 사업, 2016(PL)
- 서울시청,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2017(PL)
- 국가기록원,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2017(위촉연구원)
-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고도화 BPR/ISP, 2018(위촉연구원)
-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 조직 및 구성운영, 2019(위촉연구원)
-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아카이브 기본계획 구축 수립, 2019(위촉연구원)
- 서울기록원, 2019 서울기록원 소장기록 정리 기술 및 콘텐츠 구축, 2019(책임연구원)
-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아카이브 구축, 2019(책임연구원)
- 서울기록원, 2020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2020(책임연구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개발, 2020(책임연구원)
- 국가철도공단, KR 기록정보자원 장기보존 체계 구축(컨설팅), 2021(PM)
- 서울기록원, 2021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2021(PM)
- 국가기록원, 디지털 속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 연구, 2022(책임연구원)
- 서울기록원, 2022 서울기록원 보유기록물 평가사업, 2022(책임연구원)
- 증평군청, 증평 아카이빙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022(책임연구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 DW 구축 ISP 수립-아카이브 기초 설계 연구, 2022(자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록물분류체계 구축 연구, 2023(책임연구원)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기관자료 수집관리 컨설팅, 2023(책임연구원)
- 서울기록원, 2023년 서울기록원 보유기록물 평가사업, (책임연구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제도 합리적 운영방향 연구, (책임연구원)
- 대검찰청 형사사법기록관, 기록관리기준표 구축 컨설팅(국가형사사법기록관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책임연구원)
- 서울기록원, 2024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2024(책임연구원, 진행중)
- 서울기록원, 2024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사업, 2024(책임연구원, 진행중)
- ADD, 기록관리시스템 BPR/ISP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수립, 2024(위촉연구원)
- 이천시 이천시 기록물관리기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4(책임연구원, 진행중)

기록정보학 박사

2019. 2.

| 2012. 3. 입학, 2014. 2. 수료, 2019. 2. 졸업

| 「생산현황통보 정책 평가 연구」

기록정보학 객원교수

2017. 3. - 현재

| 2017. 3. - 2022. 8. 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강사(기록의 정리와 기술, 기록정보서비스)

| 2024. 8.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객원교수(기록관리학 연구)

협회 활동

2010. – 현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인

| 2010 – 201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국 팀원 › 교육국 국장

| 2014 – 2020 운영위원

| 2020 – 현재 이사

학회 활동

2014. – 현재

| 2013 – 2016 한국기록학회 편집간사

| 2019 – 현재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사

| 2023 – 현재 한국기록학회 이사

프리랜서 연구자

재택한다고 다 좋은건 아니랍니다

| 프로 재택근무러(2015년 이후 본격적 재택), 하지만 잦은 서울 출장

| 일개미와 베팅이

| 내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 > 무력감과 좌절감

| 기록관리계에서 전업 연구자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요약

기록 대학원 입학(2010.3) 이래 기록관리계 모든 커뮤니티에 발을 깊이 담근 상태

석사 과정부터 공공영역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하지 않겠다 다짐

기록관리 실무 경험 없음이 컴플렉스라 생각한 시절도 있었지만, 잘못된 생각임을 확실히 깨달음!

기록관리계에서의 공부와 일, 활동 모두에 깊이 만족”했던” 사람

황진현 커리어 1기

새로움, 연구라는 즐거움, 자기만족 (2010-2021)

나는 왜 전문요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대학원 자퇴를 고민했던 석사 1학기생은, 전업 연구자가 되었다

| 처음으로 공부에 느껴본 흥미

|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욕구 > 실무자가 아닌 연구자 선택

| 새로운 일, 해보지 않은 일, 협업을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

전업 연구자

대학원 졸업(2012년) 후 연구자의 길 시작

- | 석사 졸업과 동시에 박사과정 입학(졸업예정자로 동대학원 박사 진학)
- | 2012. 3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시작
- | 2014. 3 독립연구자 전업
- | 2015 결혼 이후, 프리랜서 독립연구자로 본격적(?) 활동

프리랜서 독립연구자

일개미와 베짖이

| 08:00 – 17:30 방으로 출근, 거실로 퇴근

| 19:00 이후에는 협회, 학회, 그 외 회의

| 일개미 시즌(3월-12월)과 베짖이 시즌(1-2월)이 명확

| 📱 ‘어디야?’ > ‘집이야’ > ‘좋겠다’

프리랜서 독립연구자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의 성향

| 새로운 일, 새로운 주제, 자율성 (비교적)보장, 협업의 환경

| 시간 조정이 비교적 편이

| 명확한 소속이 없고 규칙적, 안정적이지 않은 업무 환경

| 프로젝트는 나의 이력이 될 수 있을까?

기관에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프리랜서 컨설턴트)에 대해서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다.

일장일단이 있다.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좋다. 그러나 항상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늘 새로운 기관에서 컨설팅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고, 전문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끊임 없이 공부하거나 트렌드를 찾고 우리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 나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도 힘이 들 때가 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점들도 있다. 연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 기반 하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포닥이라던지. 그리고 내가 속한 명확한 조직이 없다는 점들도 좀 단점이다.

(아키비스트라운지, '기한, 퀄리티, 그리고 진심' 송영랑 인터뷰)



그나마 운이 아주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전문가’라는 정체성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황진현 커리어 2기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2022-)
나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안에 머물고 싶다.

전업 연구자가 일 할 곳 없는 현실

기록관리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는 총 58명 (2024. 2 기준)

- | 이 중, 전업연구자(소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는 약 10명 이내
- | 전업연구자들은 강의, 연구 프로젝트, 개인 연구를 병행하며 생활
- | 학회, 협회 등의 활동을 다수 하는 편
- | 박사학위 ≠ 전업연구자, 하지만 이렇게, 이정도로 없어도 되는걸까?

연구를 전업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연구 활동 축소

| 정보·기록학연구소(한국외대), 디지털아카이빙 연구소(명지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전북대) 등 대학원 내 연구소
활동의 현실적 한계(학술지 발간, 학과 내 연구활동 지원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을 비롯한 순수 기록관리 연구기관의 부재

전임 교원의 부족

기록관리 대학원의 교원 현황(2020. 9 기준)

- | 25개 기록관리대학원에서 기록관리 강좌를 진행한 교원 195명 : 전임교원(117명) 비전임교원(78명)
- | 협동과정, 문헌정보/사학과와 세부전공 대학원은 문헌정보, 사학 등 비전공 교원이 다수를 차지함

<표 25> 대학원별 교육 강사 현황 (2019~2020년 기준)

no.	대학교명		개설 강좌 수	담당 교원 수	담당 전임 교원	담당 비전임 교원
1	강릉원주대학교		17	5	1	4
2	경남대학교		9	4	4	0
3	경북대학교		15	7	5	2
4	대구가톨릭대학교		21	7	7	0
5	동아대학교		8	3	1	2
6	동의대학교		22	4	4	0
7	명지대학교		99	21	10	11
8	목포대학교		0	0	0	0
9	부산대학교		14	9	8	1
10	서울대학교		16	12	6	6
11	서울여자대학교		12	5	5	0
12	숙명여자대학교		11	5	3	2
13	신라대학교		16	10	5	5
14	연세대학교		1	1	0	1
15	원광대학교		8	5	2	3
16	이화여자 대학교	특수(정책과학대학원)	20	11	6	5
		세부(문헌정보학과)	9	4	2	2
17	전남대학교		18	11	11	0
18	전북대학교		32	6	6	0
19	중부대학교		12	4	1	3
20	중앙대학교		13	6	4	2
21	충남대학교		32	12	5	7
22	한국외국어대학교		98	41	7	34
23	한남대학교		32	10	7	3
24	한성대학교		13	8	8	0
25	한신대학교		25	5	1	8

기록관리 대학원 교원의 연구 부족

기록관리 대학원의 교원 연구성과(2020. 9 기준)

- | 학교/학과 간 연구성과의 불균형 : 4개 학과 최근 5년 간 연구실적 0건 <-> 상위 4개 학과가 전체 연구실적 50.8% 차지
- | 전임교원 연구실적의 불균형 : 7개 학과 전임교원 연구실적 0건 <-> 상위 3개 학과가 전체 연구실적의 52.5% 차지
- |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연구 실적(논문) : 전임교원 주저자 연구실적 < 비전임교원 주저자 연구실적
- | 기록관리대학원 내 교원들의 기록관리학 학문적 관심이 낮고(연구성과의 저조), 학교별 격차가 큼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인 연구(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등

개인이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성 연구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 기술 연구 등
국가 기록관리 정책 및 환경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연구자의 연구 환경

공공기관의 연구 사업(프로젝트)

- | 공공기관 발주 연구사업의 한정적, 반복적 과업
- | 정책 마련, 기술 적용, 새로운 기록관리 모델 구축 등 진짜 ‘연구’ 사업 부족
- | 연구의 성과물은 연구 사업 발주 기관에 귀속, 학술대회 및 논문 등 발표에 한계

이러한 환경은 전업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연구 사업은 일시적 프로젝트일 뿐이고, 개인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때문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나의 연구자 생활을 나보다 더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 했다. 실제 연구자로 지내는 지금까지도 기관에 취업을 해야 한다, 기록학은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걱정어린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기록과 사회, 기록 연구자로 살아가기)

연구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공공기관 - 연구자 간 파트너십 부재

- | 발주기관(갑) - 연구팀(을)의 관계에서 파트너십 부재 › 기관에서 원하는 바를 단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연구하는 파트너가 되어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야 함
- | 파트너십 부재는 연구자 부족으로 연결 (많은 회사의 연구자들이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 |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전업 연구자는 물론 산업체 내 연구자 수 부족 (현재 기록관리 관련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팀, 연구소, 산업체는 얼마나 될까)

연구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공공기관 - 연구자 간 파트너십 부재

- | 발주기관과 연구자 간의 존중, 파트너십은 결국 연구자 인력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줌
- | 적은 연구자 인력풀은 연구사업을 해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라도 마이너스 요소
- | 더 괜찮은 사람, 연구자, 기관과 연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함

연구자의 반성

기계적으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

- | 자기복제, 타 연구사업 결과물의 과도한 참고, 기계적인 산출물 작성 등을 지양
- |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연구의 과업을 맡았다면 끝까지 책임
- |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임승차 하는 일은 없어야.
- | 변화하는 환경, 이론, 기술 등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연구원으로도, 연구 책임자로도 모두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연구를 직접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평소에 내가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퀄리티다. 연구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한 내에 완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기계적으로 자기복제하지 않고 의미 있게 일을 하는 것.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등 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일은 미숙할 수도 있고, 퀄리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배우면 된다. 못하겠는 일이나 상황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잠수하거나 일을 떠넘겨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아키비스트라운지, '기한, 퀄리티, 그리고 진심' 송영랑 인터뷰)

Part 2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업계의 크기

전문요원 배치 현황

공공영역 약 64.1% 배치

|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총 3,048명 중, 공공영역

배치기관은 1,047개, 배치인원은 1,188명

약 39%가 공공영역에서 근무

| 민간영역의 취업 현황은 파악이 어려우나, 소수일

것으로 예상(현실)

2023년 전문요원 배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배치기관			배치인원		
			배치대상	배치기관	비율	배치정원	배치인원	비율
합계			1,633	1,047	64.1	—	1,188	—
국가기관	소계		293	218	74.4	352	261	74.1
	중앙 부처	중앙행정기관	51	51	100	70	66	94.3
		소속기관	140	133	95.0	159	139	87.4
	대통령 관련*		3	3	100	4	5	125
	군기관		99	31	31.3	119	51	42.9
지자체**	소계		245	240	97.9	332	312	93.9
	시·도		17	17	100	60	58	96.7
	시·군·구		228	223	97.8	272	254	93.4
교육청	소계		193	154	79.7	198	158	79.7
	시·도교육청		17	17	100	24	21	87.5
	교육지원청		176	137	77.8	174	137	78.7
대학	소계		251	84	23.3	—	88	—
	국립대학		42	41	97.6	—	45	—
	사립대학		209	43	13.5	—	43	—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공 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소계		651	351	53.9	—	369	—
	1호	공기업	32	30	93.8	—	41	—
		준정부	55	53	63.3	—	68	—
		기타	259	155	63.2	—	137	—
	2호** (지방공사·공단)		114	78	71.5	—	91	—
	3호** (지자체 출자·출연)		17	2	11.8	—	1	—
	4호(특수법인)		174	33	22.3	—	31	—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거, 기록관 설치 기준(연간 기록물 생산량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에 따라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이 결정됨

*주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 **경남·서울·청주기록원 소관 기관 포함

산업의 크기

기록관리계 소규모 산업

- | 매출이 10억 이하인 산업체가 전체의 61.4%
- | 기록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리 사업만으로는 산업체 규모 확대가 어려움

2. 2022년 전체 매출액

[표 7] 전체 매출 현황

(단위 : %, 백만 원)		사례수	10억 이하	10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40억 이하	40억 초과 50억 이하
전체		(2,753)	61.4	10.5	6.2	3.7	2.0
전자문서 생산업		(1,098)	68.7	9.2	6.0	4.3	1.4
전자문서 관리업	소계	(1,174)	56.2	11.5	7.7	3.3	1.8
	전자문서 콘텐츠 관리·보관·보안업	(571)	51.6	10.8	6.5	2.2	2.7
	전자문서 기록관리 및 보존업	(73)	61.6	16.4	5.5	2.7	0.0
	전자문서 공유·통합 관리업	(530)	60.4	11.6	9.3	4.6	1.2
전자문서 유통업		(481)	57.1	11.1	2.9	2.9	4.1

[표 8] 전체 매출 현황 (계속)

(단위 : %, 백만 원)		사례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1,000억 초과	전체 매출액 평균
전체		(2,753)	7.4	6.2	0.9	1.7	58,976
전자문서 생산업		(1,098)	4.9	4.3	0.5	0.8	4,971
전자문서 관리업	소계	(1,174)	8.9	7.9	1.4	1.3	28,713
	전자문서 콘텐츠 관리·보관·보안업	(571)	13.7	9.8	0.7	2.1	54,207
	전자문서 기록관리 및 보존업	(73)	2.7	9.6	0.0	1.4	9,369
	전자문서 공유·통합 관리업	(530)	4.6	5.7	2.3	0.4	3,911
전자문서 유통업		(481)	9.3	6.6	0.9	5.0	256,118

(Base: 전체)

기록관리 업무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가

재수 없게 특정 업계의 평균치가 아주 낮다면? 점점 더 고급 인력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서로 낮은 성과를 기대하는 하향평준화가 작용한다. 그러다 보면 업계 전체의 생산성도 내려간다. 결과적으로 집단 게임에 의한 사양 산업화가 작동할 수도 있다. 실제 오래된 많은 업종들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평균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08p)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온다. 대개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기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거나,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럴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85p)

(우석훈,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2016)

“인재다빠진다” 두 직급뿐인 연구직 공무원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6.28 17:59 | 수정 2023.06.28 17:59 | 댓글 0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위해 직급체계·인사제도 바뀌어야
직급체계 세분화·단일직급 등 다양한 대안 고려할 수 있어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환경·학예·농업·수의 등 14개의 분야에서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업무의 성격이 연구인만큼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다수 임용된다. 별도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981년 신설된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성된다. 연구사로 입직해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구조다.

토론회에서 강동한 공무원연맹 연구직특별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 직급체계를 두고 “연구관 계급은 대학교 교수고, 연구사는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사와 연구관만 존재하니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 적체도 심하고, 승진 적체에 따른 갈등도 있다는 게 강동한 정책본부장의 설명이다.

강동한 정책본부장은 “연구사로서의 근속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 지속된다. 소속 기관이 정원 상황에 따라 천양지차인데, 조직의 확대에 따라 연구관 정원이 급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전에 임용된 선배 기수에서 연구관 자리를 모두 차지할 경우 평생 연구사로 봉직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진급 구조는 연구사의 능력, 자질 향상과 성과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The Career Does Not Love You Back”: Impacts of Contingent Employment on Workers,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the Archival Profession 🛒

Stephanie Bredbenner; Alison Fulmer; Rose Oliveira-Abbey;
Meghan R. Rinn

Abstract ▼

View Article

 PDF

(Re)Appraising Our Archival Identity: Demystifying the Process and Changing the Dialogue about Promotion and Tenure for Academic Archivists 🛒

Elizabeth M. Scott; Heidi Abbey Moyer; Rebecca Hankins;
Rachel Walton

Abstract ▼

View Article

 PDF

기록관리산업은 없다

기록관리의 작은 업계, 우리는 ‘산업’이라 할 수 없다

- |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40% 가량이 공공영역에 취업
- | 기록연구사(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형편없는 채용공고
- | 연구직렬의 막혀버린 승진 기회
- |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기록관리 산업체

기록전문가는
‘전문성’이 있는가?

대학원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 교과 영역별 지식 내용의 차이 등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 필수 및 선택 교과 운영 등의 체계성 미흡

| 개념적 지식 습득에 편중된 운영

| 대학원 및 대학원 운영 형태에 따른 교과 운영의 격차

| 실습 수업의 부족

| 민간기록관리 영역의 부족

| 현용기록보다 아카이브 관리 지식에 집중된 경향성

〈표 2〉 영역별 운영 교과목 현황(2020.09 기준)

교과 영역		교과목명 예시	과목수	%
기초영역		구술기록관리, 한국 기록관리 제도, 행정법 연구, 기록관리 법제 연구, 기록관리 정책론, 기록관리학개론, 동양의 기록관리 체계 연구, 민간기록관리론, 사진영상기록관리론, 서양의 기록관리 체계 연구, 세계(외국)의 기록관리, 특수기록물관리	169	21.6
전문영역	기록 선별, 평가, 수집	기록물 평가·선별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기록물 평가론, 민간기록물 수집론	35	4.5
	기록 정리, 기술, 조직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기록물 조직론, 전거 및 시소러스 구축론, 기록 색인의 작성 및 검색, 기록물 메타데이터, 기록물 정리와 분류	41	5.2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접근제한, 홍보	기록정보서비스론, 정보공개론, 기록콘텐츠와 문화유산 관리, 기록물 저작권 세미나, 기록전시	33	4.2
	보존, 보호	기록물 보존론, 종이기록물 특론, 디지털 보존세미나	28	3.6
	전자적 관리	전자기록관리론,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연구, 기록관리시스템론,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뉴미디어연구, 전자기록 장기보존론	68	8.7
	기록관 운영	지방기록관의 운영과 지방사, 기록관 관리와 경영, 기록관계획론, 전문기관 기록물관리론	30	3.8
	기록관리 역사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서양 기록관리의 역사, 동양 기록관리의 역사, 역사기록관리 특론, 고문서학, 유럽의 기록관리제도사, 미국의 기록관리제도사, 한국 기록관리제도사, 동양의 기록관리제도사, 기록문화 연구, 지역과 공동체 기록론	63	8.1
	전문직 윤리 가치	기록관리윤리, 행정윤리	6	0.8
보조영역	관련 학문영역	역사학(동양사, 서양사)개론, 구술사연구, 지역사연구,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론, 통계 및 전산처리, 서지학	185	23.7
실습영역		기록관리(현장)실습, 전자기록물 실무	26	3.3
연구영역		논문연구(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기록관리학 세미나, 기록관리학연구방법론, 기록관리 선진사례 연구	97	12.4

대학원 졸업요건

연구하지 않는 예비 기록전문가, 기록연구사

- | 교육부의 일반대학원 지침 변화(완화)에 따라,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를 인정받아 졸업 가능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과내 보고서 작성, 학점 추가 이수 등으로 학위논문 작성 대체)
- | 기록'연구사'로 '연구'직렬을 목적으로 함에도 연구에 대한 훈련 부재
- | (석사학위 과정 중)약 30여 학점 이수, 졸업시험이 전문가 교육으로 충분한가?

대학원의 박사과정

박사과정을 위한 수업 및 연구 기회 부족, 박사과정 학생의 낮은 수업 성실도

| 박사과정만의 별도 수업 부족 (대다수의 수업이 석사+박사 통합 수업으로 진행)

| 한 분야의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박사학위'에 적합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가? 박사과정생의 수업 성실도는 이대로 괜찮은가? >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현실 상, 높은 성실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대학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연구 기회가 있는가?

| 기록학의 박사학위, 연구의 정도와 수준을 더 높여야.

기록전문가의 심화 교육

기록전문가의 재교육, 심화교육의 부족

-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 외에, 전문가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거의)없음
- | 10년 차 이상, 근무 연차가 높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의 부족
- | 기록전문가를 심화교육 할 수 있는 교육 인력의 부족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홈페이지

과정구분	과정명
전문교육	기록관리전문가 경력자
전문교육	2024년도 기록관리 강사인증
전문교육	기록물 활용
전문교육	기록관리시스템과 실무의 이해
전문교육	기록관리전문가 신규자
전문교육	[비대면] 기록관리 공통직무
전문교육	[비대면] 공공기록물법령 이해
전문교육	2024년도 기록물관리 종사자(협업)
일반교육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I
일반교육	기록융합강연회 (시범과정)

과정구분	과정명
일반교육	대학(원)생 실습
전문교육	인공지능과 기록관리
전문교육	[비대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전문교육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 피해기록물 응급 복구
전문교육	기록관 일반
전문교육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

결국 우리는,

훈련된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때

‘- 해서’ 부족한 연구와 공부

- | 대학원 30학점의 절대적 수업량 부족, 대학원 학위논문 대체로 인한 연구 부족
- | 박사과정의 수업 성실도에 대한 고민
- | 대학원 내 연구소 및 연구활동 부족으로 인한 석/박사 과정생의 연구기회의 부족

공공에만 치우친 인식과 교육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직업을 갖는다면

- | 기록연구사,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계 취업의 일부일 뿐 > 기록연구사, 전문요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 생각하는 분위기
- | 산업체, 연구 등은 안정적이지 않은 마이너 직업으로 여기는 것
- | 확산되는 아카이브,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 역할을 위한 전문성 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예: 서비스 전문성)

요즘에는 많은 후배들이 졸업 후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을 택하고 있고 (물론 기록연구사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다), 사기업보다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최종 정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여기에 대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기록공동체를 지켜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무원은 채용 계획이 있고 정해진 절차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입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졸업 후 직업을 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성향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이 있다.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을 생각해보면 프로젝트성 업무와 잘 맞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기한 내에 업무를 마치느라 밤을 새가면서 일하는걸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결과가 발주사에 귀속되는 것을 허무해하기도 한다. 사무실이 아닌 서고에서 며칠동안 먼지를 마시며 하루 종일 기록물에 라벨을 붙이는 날도 있는데, ‘이러려고 공부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 중에 하게 되는 일들에서 재미를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민간기업에 지원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키비스트라운지, ‘새로운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 함께 답을 찾는 파트너’ 김화경 인터뷰)

관리자급으로 가지 못하는 전문요원

관리자급 이상의 기록전문가 채용 공고가 사라진 지금,

|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서울기록원장 > 모두 행정직으로 변경

|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 기록정책과장 > 기록정책과장(개방형), 보존서비스과장은 내부 직원(기록연구직)

|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 행정직으로 변경

발전하지 않는 전문성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지향해야 할 때

- | 우리는 스스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 | 기록관리의 이슈와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가
- | 기록관리계의 문제를 나와 관계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는가

기록학계의 역사를 생각하면 본인은 중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대학원이 생겼던 때와 지금,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1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스템 위에서 동어반복을 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 군도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조만간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다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웃음).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가가 그 분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가 복제를 하면서 스스로를 단순 기능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며 업이 유지되도록 하되,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활발한 이직 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키비스트라운지, ‘유능한 사람이 활발히 오가는 공동체를 바라며’ 이승용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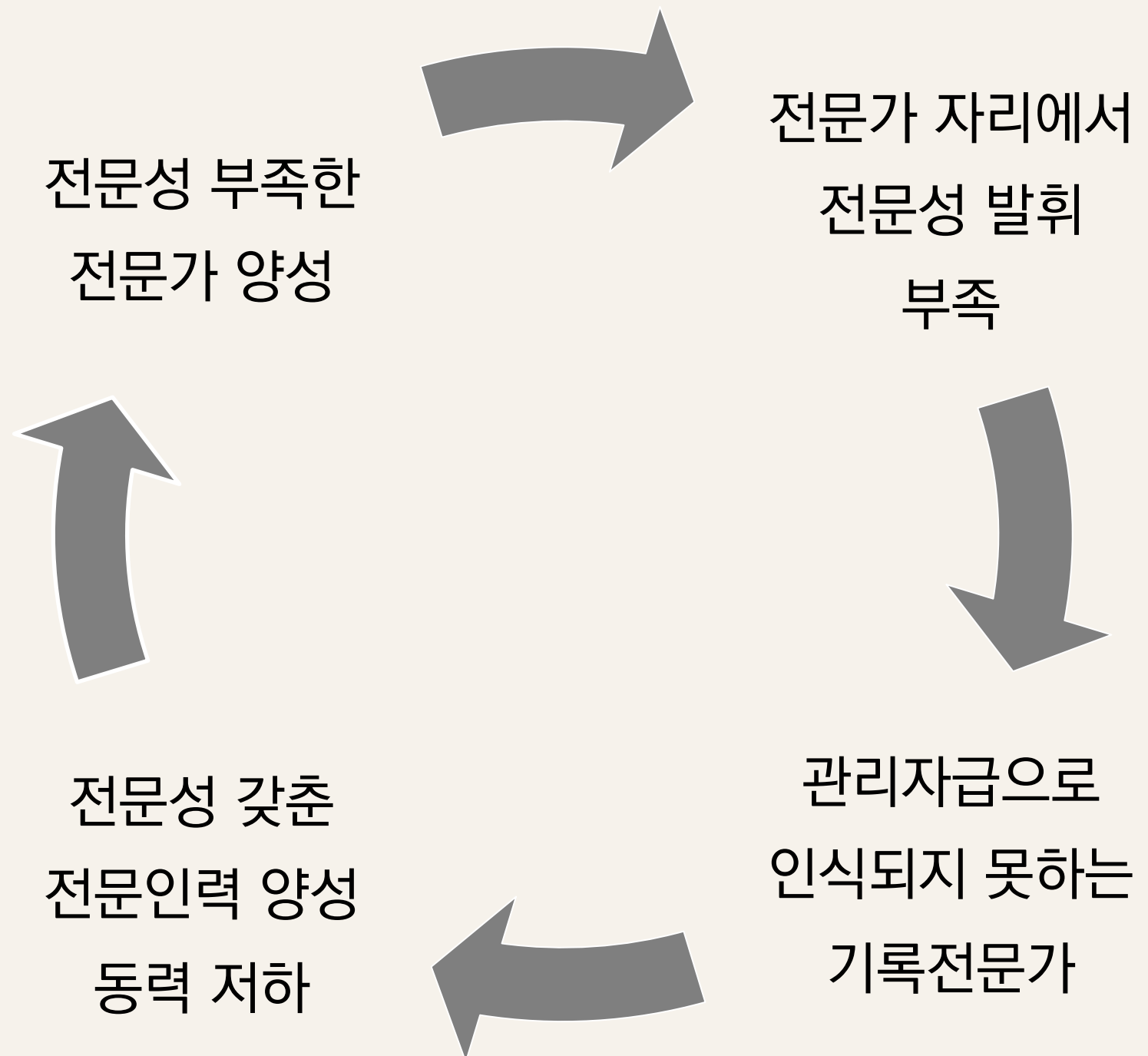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기록학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기록학계란 게 우물 안 개구리고 고인 물이 아닐까란 생각을 가끔 한다. ISO 15489 신봉(경직된 사고, 졸업 후엔 연구 안함), 인공지능이나 오픈소스에 대한 반감(전문성을 위협하므로), 국가기록관리혁신 추진단 운영 과정의 문제, 면피문화, 무관심 등을 대할 때 과연 전문가 집단이 맞나 싶더라. 학위논문에도 썼지만 지금의 기록학계는 스스로 혁신이 불가능한 구성이다.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나 연구자랄 게 거의 없다. 학계란 표현도 애매하다.

기록 커뮤니티(기록공동체) 개념을 더 자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록 커뮤니티의 바운더리를 훨씬 포괄적으로 잡았으면 한다. 여기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학계란 집단은 왠지 민간아카이브를 가르치려 하는데 민간에서 원하는 아카이브나 기록학계의 역할은 기록학계가 생각하는 것과 꽤나 괴리되어 있다.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선 대통령비서실이나 서울기록원의 시도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아키비스트라운지, ‘게릴라 아키비스트’ 안대진 인터뷰)

좌절의 도돌이표



현실 직시와 공론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도생,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기록관리의 발전

기록전문가의 일자리, 업무와 연구환경에 대해 공론화 필요

Part 3



바꿀 방법은 있을까?

우리의 바람

이렇게 된다면, ‘좋아하지만 지속할 수 없다’는
나의 판단이 바뀔지도

개인의 최선

전문가란

“숙련된 업무를 오랜 기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스페셜리스트는 직업의 이름에 매몰되지 않고,
내 일을 둘러싼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내가 알던 일의 경계를 넘는 사람입니다.”

[\[출처\] 이수현, 누적 50만 뷰 <멋있으면 다 언니> 기획자가 생각하는 스페셜리스트는? \(PUBLY\)](#)

가시적 성장이 가능한 미래

유능하고 멋진 동료들

[교육]

새로운 연구

[연구]

변화하는 업계

끊임없이 새로운 걸 알아 두어야만 하는 그런 업계

그들과의 네트워킹

[커뮤니티]

Epilogue





‘성숙한 기록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오늘 발표의 출발점: 두 사람의 소망



공공기록물법에서 출발한 ‘기록관리’

법 제정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안의 기록전문가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각 개인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일하는 삶’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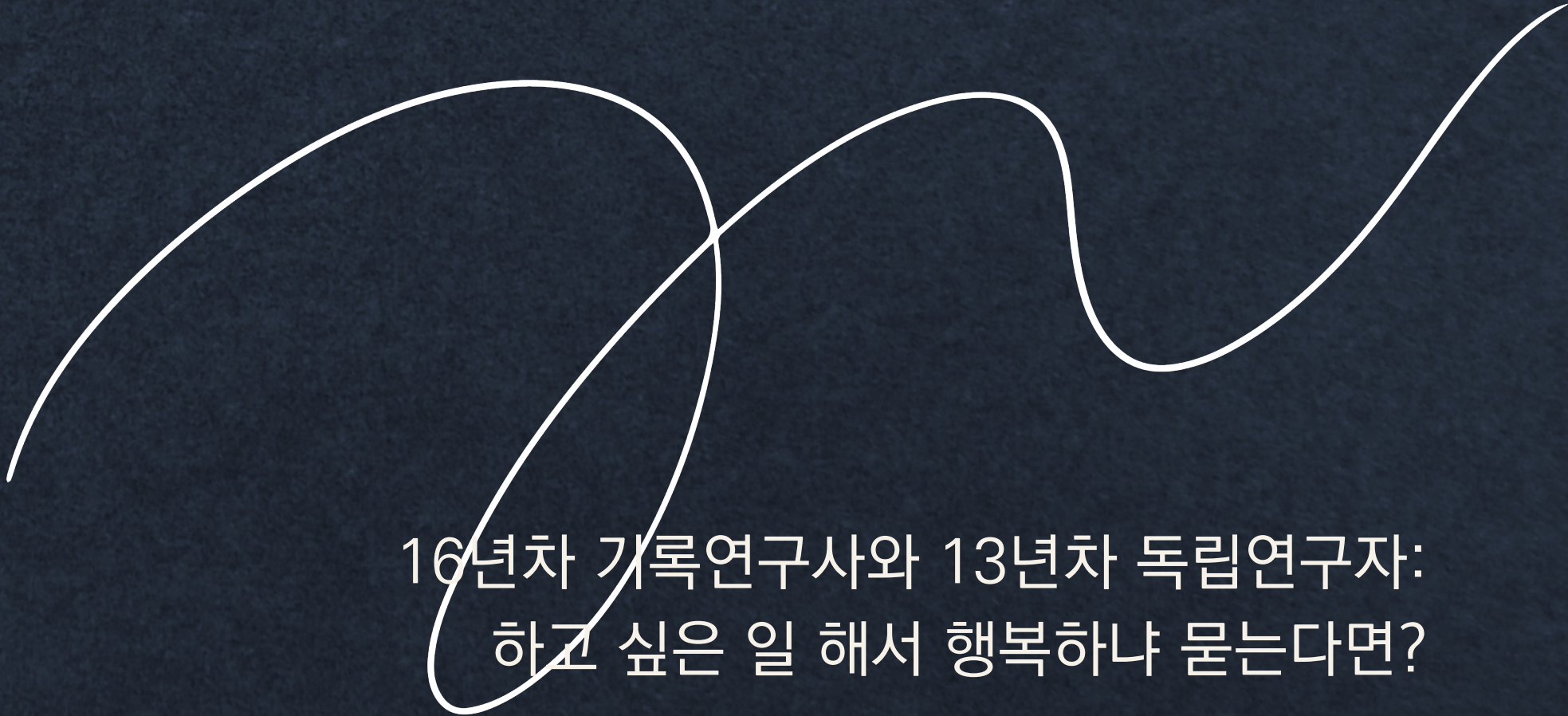
그 소망의 기반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기록공동체’가 바뀌어야



아키비스트라운지의 계획

‘아키비스트가 말하는 아키비스트’(시즌 1,2) 인터뷰 책 출간
새로운 인터뷰(기록학의 시작) 기반의 책 출간

Archivist Lounge



16년차 기록연구사와 13년차 독립연구자: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